

지역균형발전 핵심 '기회발전특구' 지정 총력

RE100 중심 'e신산업' 유치 투자기업발굴 연계사업 준비

나주시가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 핵심 사업으로 꼽히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기회발전특구는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정책 수단이다. 지방정부가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업종을 육성하면서 지역이 원하는 교육시스템의 도입과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핵심이다.

특구 지정시 기업·연구소 등에 대한 규제 여부 신속확인, 실증 특례, 임시허가 물리적 규제 해소 등 혁신적인 규제 특례가 적용될 전망이다.

취득세·재산세·소득세·법인세·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 감면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특구 지정 근거 법안인 '지방자치분권·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오는 7월10일부터 시행된다.

나주시는 에너지산업과 화전을 비롯한 전력그룹사가 소재한 혁신도시, 켄텍(한국에너지공단)으로 연결되는 '산·학·연 인프라 강점'과 재생에너지100(RE-100) 중심의 에너지국가산단을 앞세워 특구 지정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특구 지정을 추진하는 대상은 이미 조성된 국가산업단지과 혁신도시 등이다.

전남도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지정된다.

나주시는 에너지신산업 기반 기회발전 특구 지정을 통해 새로운 지방시대,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선도한다는 포부다.

특구유치 실무추진단을 꾸려 지난해 출범한 RE100중심 에너지정책자문위원회와 함께 특구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앵커·관련기업, 연구소 등 유치 전략을 구체화한다는 구상이다.

2025년 착공 예정인 120만㎡규모의 에너지국가산단을 에너지신산업 기회발전특구 거점으로 키우고 혁신산단 입주 기업과 연구소,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켄텍 등 집적화된 산·학·연 인프라 강점을 연계해 타 지역과 차별화된 특구 모델 발굴에 나설 방침이다.

전남도, 켄텍과 국가대형연구시설인 초강력레이저 연구시설, 인공태양공학 연구소 유치에 나서는 등 세계적인 에너지 국제도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에너지신산업 중심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국가 에너지 안보를 지키고 국가적 과제를 에너지수도 나주에서 주도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구 지정에 치열한 각축이 예상됨에 따라 나주만의 특화된 특구 기본계획 수립과 투자기업 발굴, 기업 수요 인센티브 구체화, 특구 지정 파급효과를 확대할 연계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나주·조대봉·박승엽 기자

남도의병 역사관 건립 지역 관광활성화 시동 나주시 "관광명소 도약"

나주시가 전라도에서 추진하는 남도의 병역사박물관 건립 부지확보를 위한 나주영상테마파크 부분 철거와 관련, 지역 사회 여론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놨다. 시는 테마파크 만성 적자 운영을 해결하기 위해 박물관을 건립 신규 관광활성화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18일 나주시에 따르면 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통해 지난 2020년 7월 전라도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남도의병역사박물관 건립사업이 오는 2025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본격 추진된다.

박물관은 남도의병의 구국 충혼을 기리고 의병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전라남도 역점사업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나주시 공산면 신곡리 일원 부지 36만 3686㎡(11만평), 연면적 6884㎡ 규모로 건립된다.

내년 9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 첫 단추인 부지확보를 위해 이르면 내달부터 테마파크 시설물 부분 철거가 이뤄질 계획이다. 시설물 철거와 관련된 지역사회 찬반 여론이 있지만 나주시는 남도의병역사공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박물관의 원활한 건립 추진을 위해 테마파크 시설물 부분 철거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나주시는 2007년 준공된 이후 16년이 경과한 테마파크 건축물 노후화에 따른 지속적인 유지보수 비용 발생, 관광객 감소로 인한 만성 적자 운영 등의 문제점을 부분 철거와 박물관 건립을 통해 해소하고 새로운 관광 활성화 거점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이다. 박물관 건립부지 외 고구려궁은 존치하고 박물관과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나주·조대봉·박승엽 기자



나주빛가람동주민자치위원회(회장 채성군)가 지난 14일 빛가람동 호수공원 야외무대에서 700여 명의 관람객들과 함께 빛가람버스킹 2차공연을 가졌다. 3차 공연은 오는 21일 열리며 28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9시까지 열린다.

나주 빛가람버스킹 2차 공연 성황...700여 명 관람 '문화갈증 해소'

28일까지 수요일 오후7-9시

나주빛가람동주민자치회는 지난 14일 빛가람호수공원 야외무대에서 '2023 신이나주~! 빛가람버스킹' 2차 공연을 마쳤다고 18일 밝혔다.

3차 공연은 오는 21일 열린다.

2차 공연은 △필하모니의 색소폰·하모니카·팬플룻 △유투의 통기타&노래 △일대풍호의 태권도 경연 △팬타곤의 팬플룻 △소프라노 고우리의 성악 순으로 진행됐다.

700여 명이 참석해 시민들의 문화 갈증 해소와 함께 힐링의 장으로 호응을 얻

었다.

여흥현 세계한인무역협회 독일회장 부부가 깜짝 방문해 김철민 나주시의원, 김민주 나주시주민자치협의회장, 곽도근 봉황면발전협의회장 등과 함께 공연을 관람했다.

여흥현 세계한인무역협회 독일회장은 "독일인 아내와 함께 나주를 방문했는데 우연한 기회에 멋진 빛가람버스킹 공연을 관람하게 됐다"며 "독일인 아내에게 힐링을 선물하게 돼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빛가람동주민자치회 주최·주관, 나주시 후원으로 진행되는 '빛가람버스킹'은

7일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오는 28일까지 6월 한 달간 매주 수요일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 3회 공연은 오는 21일 오후 6시30분~9시30분 빛가람호수공원 야외무대에서 펼쳐지며 버스킹 신청은 실무 집행위원장 휴대폰(010-2634-8411)으로 하면 된다.

3회 버스킹은 △'하늬바람'의 팬플룻 △빛가람 음악줄넘기 △'유투'의 통기타 &노래 △현장 관객 즉석 댄스&노래 자랑 이벤트 △'더블루이어즈'의 색소폰 &여성보컬 콜라보 등이 예정됐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이날 해외순방 중 메시지를 전하며 "빛가람버스킹이 코로

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과 혁신도시 이전기관 직원들에게 신이 나고 흥이 나며 재미나도록 힐링을 제공해 주고 있다"며 "빛가람 혁신도시가 살맛나는 멋진 문화도시, 명품 교육도시가 되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채성군 나주시 빛가람동주민자치회장은 "흥이나주~!"를 테마로 한 지난해 버스킹 호응이 좋았는데 올해 '신이나주~!' 버스킹도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며 "내년에는 '재미나주~!', 그다음에는 '살맛나주~!' 등 지속가능한 문화의 장르로 자리매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나주 박승엽 기자

청정전남 으뜸마을 워크숍 나주시, 2곳 마을 대상

나주시는 '청정전남 으뜸마을' 사업 2곳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 활성화 워크숍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공동체 정신 회복과 활력있는 마을 조성을 위해 오는 2025년까지 주민 주도로 마을 환경 및 경관을 개선하는 전남도 시책사업이다.

시는 지난 15일 세지면 죽산리 용죽마을 경로당을 방문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내 마을은 내 손으로!'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진행했다.

나주시공익활동지원센터가 양성한 마을 디자이너·공익활동가를 워크숍 강사 및 퍼실리테이터(조직원이나 프로젝트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율하는 촉진자) 역할을 수행토록 했다.

워크숍 내용은 △마을 자원 및 유래 조사 △마을 의제발굴을 위한 이론 및 실습 활동 △사업 추진 관련 토의 활동 순으로 진행됐다. 오는 22일 문평면 동아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한 차례 더 워크숍을 가질 예정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주·박승엽 기자

"UAE왕실도 나주배 맛에 반해"... 나주시, 100만달러 수출협약

아랍에미리트(UAE) 왕실에서 맛을 인정받은 나주배가 조만간 두바이 수출 길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나주시에 따르면 윤병태 시장이 이끄는 'UAE농산물 수출 개척 방문단'이 지난 14일 출국해 2박4일 일정으로 현지에서 나주 농특산물 수출 판촉 활동을 활발하게 펼쳤다.

방문단 활동 기간 윤 시장은 지난 15일 두바이 현지 한인 유통업체인

'1004 GOURMET'(천사마트)와 100만달러(12억8000만원) 규모의 농특산물 수출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수출방문단에는 나주배원에농협, 골든힐, 완도물산, 가보팜스 대표, 시의원, 나주시유통행정팀 직원 등 11명이 함께 했다.

방문 기간 윤 시장은 두바이 대한민국 총영사관을 찾아 문병준 총영사관과 면담을 통해 지역 농산물 수출·판로 확보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윤 시장은 한국 항공우주산업(KAI)에서 UAE와 절충 교역 잔여 비용을 나주배(2000만원 어치)로 대신 지급했던 일화를 소개했다.

당시 나주배를 전달 받은 UAE왕족은 인근 오만 왕족에 선물했고 오만 왕족도 추가 주문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시장은 "UAE왕실에서 명품 나주배를 맛볼 수 있도록 8월 조성중 배를 총영사관을 통해 선물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나주배가 UAE왕실과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과일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린다"며 신고배 5상자를 총영사관을 통해 왕실에 전달토록 요청했다.

윤 시장은 다음 일정으로 한국농수산식품공사(aT) 두바이 해외지사서 UAE 대형 유통업체인 '유니언쿱'(Union Coop) 구매 담당자, 바이어 등과 농산물 수출 판로 모색을 위한 상담회를 주재했다.

나주·조대봉·박승엽 기자